

**ICLEI  
WORLD  
CONGRESS  
2009**

**Connecting Leaders**  
Advancing Local Action for Sustainability

14-18 JUNE 2009  
EDMONTON · ALBERTA · CANADA



## 세계총회결과 보도자료

지방 지도자들 지속가능성에 필요한 근본적이고 신속한 조치에 대한 합의 공유

캐나다 에드먼턴 - 2009 ICLEI 세계총회가 에드먼턴(캐나다)에서 2009년 6월 18일 막을 내렸다. 3년 주기로 열리는 이번 총회는 57개국에서 온 600여명의 대표단들은 전 세계적인 견해의 차이를 들어내는 지역의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에 대해 배우기 위해 3년 주기의 회의로서 5일간 함께 하였다.

“세계인구의 절반은 머지않아 75%에 이르게 될 도심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5%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지역적 수준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ICLEI의 데이비드 캐드만 회장은 말했다.

ICLEI 총회를 통해 ICLEI 회원 간 통일성 및 동기가 공유되었다. 회원들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다 신속하고 보다 급진적인 행동을 할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이 때문에, ICLEI 협의회 세션에서는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젊은 도시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것에서부터 도시 생물종 다양성에서 ICLEI의 업무를 진척시키려는 제안들이 채택되었다.

캐드만은 ICLEI가 지난 3년 동안 이루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2012년에 있을 다음 세계총회까지 회원의 수를 두 배로 늘리도록 요구했다. ICLEI의 창시자이자 유명한 도시계획전문가인 쥘 브러그만은 성장하고 있는 ICLEI 회원조직으로써 ICLEI 과거, 현재 그리고 활기찬 미래를 숙고하였다.

ICLEI 회원들은 국제 생태발자국 네트워크 이사이면서 생태학적 풋프린트의 창시자인 Mathis Wackernagel와 같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광범한 범위의 지구적 시나리오를 목격했다. 그들은 소규모 포커스 그룹으로 참여하여 어떻게 비상시의 변화에 대해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포커스 그룹과 다른 회의에서의 의견을 모아 ICLEI는 다음 6년 동안의 전략계획의 초안을 다가올 수개월내에 작성하고 정당한 법 절차를 밟기 위해 ICLEI 회원들에게 검토를 위해 제출할 것이다.

기타 ICLEI 하이라이트와 ICLEI 아시아의 소개를 포함한 업적 ; 아시아 지방정부들에게 봉사할 조직. 이 공표는 아시아에 있는 ICLEI의 4개의 지역사무소(한국사무소, 일본사무소, 동아시아사무국, 동남아시아사무국)에서 제시됐으며 이사회에 의한 긍정적인 발전으로 보여졌다. ICLEI 회원의 10%가 아시아에 있으며, 아시아 지역인구의 40%를 구성하고 있다. 내년에 아시아에서 개최될 국제회의는 그 지역의 ICLEI 성장 강화뿐만 아니라 ICLEI의 창립 20주년을 축하하게 될 것이다.

ICLEI의 회원들은 에드먼턴에서 다음 세계기후협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나타냈다. 그들은 2009년 12월 UN기후변화회의가 열리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ICLEI 운동은 지구의 지속가능성에서 눈에 보이는 진전을 이룰 지방정부의 세계적인 운동을 이룩하기 위하여 새로운 의용으로 떠올랐다.